

2002학년도 새 대학 입학 제도의 도입과 앞으로의 과제

최 수 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와 과장

I. 머리말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 제도는 크게 보아 십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 방식,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 획일적인 선발 방식, 대학간 서열화,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입 정책은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서의 진학 위주의 파행적 운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는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의 산업 및 고용 구조와 개개인의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식의 양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효용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지식의 축적과 관리,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조직이나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가 됨으로써, 지식이 어느 생산 요소보다 중요한 지식 기반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직업의 분화와 전문화 및 새로운 직종의

탄생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기존의 교과목 위주의 암기식 학습에 의한 규격화된 인력으로서의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형 제도는 과거와는 전혀 상이한 사회적·교육적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이하에서는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정책의 배경과 기본 방향, 내용,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대학 입학 관련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새 대입 제도 개선 배경과 의의

종전의 대학 입학 전형은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대학 입학 전형 방식이 모든 수험생을 시험 성적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으로 고착되어, 대학은 학생이 취득한 수능 성적 총점과 내신 성적 등을 합산한 점수의 소수점 단위로 입학 당락을 결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여 대학 진학을 지도하기보다는 수능 성적에 따라 합격 가능한 대학을 서열화시켜 작성한 배치기준표에 학생의 성적을 대비

시켜 진학 지도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직되고 획일화된 전형 방식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미래의 시대는 단순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 관리,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품성을 지닌 건강한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임에도 고등학교에 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진학 위주의 단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덕·체가 조화되고 고등 정신이 함양된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점수 획득을 위한 공부와 이로 인한 무한 대학 입학 경쟁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무거운 학업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성적 부진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많은 학부모들도 고액·과열 과외로 인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심지어 과중한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부정 비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진단까지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학들도 건학 이념과 대학이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학생의 성적 중심으로 선발함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성적 수준에 의해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학생 인적 자원의 편중 현상으로 자유로운 경쟁의 바탕 위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간 대학 교육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적으로는 우수 인력이 대부분 법대, 의대 중심으로 진학을 하게 되어 인력 배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다원화된 인력 구조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 양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초 학력을 충실히 구비하고 다양한 특기·소질·적성 등을 가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입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학력보다는 능력이 위주로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을 존중하는 대입 제도의 개선”을 선언한 이래 수많은 연구와 토론, 공청회를 바탕으로 하여 '98년 10월 19일에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던 것이다.

Ⅲ. 새 대학 입학 제도 주요 내용

학생의 기초 학력과 특기·소질·적성 등을 중시 하되, 소모적인 학력 경쟁을 지양하는 선발 입학 전형으로서 모든 대학은 건학 이념, 교육 목표 등 각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 학생 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전형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새 대학 입학 제도에서는 대학들이 전형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영·수 위주의 대학 본고사는 지나친 학력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제한 될 것이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지금까지 대입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시험 성적 위주의 대입 전형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 자격 기준으로만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 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이 대폭 낮아지도록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단순 암기 지식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분석력·문제 해결력 위주의 수학 능력을 함께 측정하고, 현재의 3개 영역을 언어·수리·사회 탐구·과학 탐구·외국어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현실화하며, 석차화를 부추길 수 있는 소수점 배점 및 총점을 폐지하며, 등급제로도 활용할

〈표〉 등급별 수능 응시생의 비율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수 있도록 9단계의 등급도 제공한다. 등급별 수능 응시생의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

2.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

고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3년간 활동인 지(교과 성적), 덕(품성·봉사·협동 등), 체(체력 등)를 종합 기록하기 위하여 다매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이 이의 활용 여부를 자율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학은 교과 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 단위의 성격에 관련된 과목으로의 활용을 제고하는 등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학력과 관련된 자료 이외에

다양한 전형 자료의 활용

대학은 각종 자격증, 경시 대회 수상 경력, 수학 계획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 취업 경력 등 학생의 소질과 특기가 반영되는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면접은 학력 이외의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고력, 지도력, 협동심, 기초 소양, 폭넓은 독서 여부, 의사 표현 능력의 평가 및 제출 자료의 확인을 위해 심층 면접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특별 전형의 활성화

과거의 학생 선발 방식은 일반 전형에 의해 한 가지 척도와 기준에 의하여 총점으로 만들어 석차화하여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경시하여 왔다. 그러나 새 대입 제도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은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 방식에서 학생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는 '여러 줄 세우기'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 전형은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이 여러 줄로 나누어지므로 다원화 시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선발 방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며, 새 대학 입학 제도는 개별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별 전형 유형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별 전형에 의한 학생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 사항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특기나 능력이 우수하거나 수상 실적·실업계 고교·산업체 근무 등 경력에 의한 특별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농어촌 출신자·생활보호 대상자 등 소외 계층 대상 전형 등 보상적 차원의 특별 전형 등이 모두 채택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5. 대학에 따라 다양한 선발 방법을

자율적으로 활용

개별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 기준과 전형 방법이 활성화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고교장 추천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 교과 교사, 종교 지도자, 자치

단체장, 산업체 추천, 자기 추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된다. 주로 모든 요소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형 자료별로 활용하는 방식, 단단계로 하는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 등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전형의 경우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전형 자료를 자격 기준 또는 선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 소양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들이 선택적으로 이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대학이 전형 일정을 분산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 있는 전형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교 3학년 1학기에 10% 이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수시 모집을 설정했다.

IV. 새 대입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러한 새 대입 제도가 발표되자 대다수의 국민들과 여론은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여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새 대입 제도가 발표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바뀐 대입 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일부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아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저해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2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한 과제와 쟁점 및 그 대책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학별 전형 방법의 다양화 · 특성화의 지속적 확대와 쟁점

'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대학들은 자유로운 학생 선발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형 방식을 개발하고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 전형 전체 모집 인원에서의 비율도 '98학년도 16.3%, '99학년도 18.7%, 2000학년도 21.5%, 2001학년도 22.8%으로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또한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대학들이 다양한 특별 전형을 채택할 계획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입 전형의 다양화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특별 전형의 확대로 학생들이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오해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도 대학 수학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특별 전형 확대로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에서 특별 전형 기초 학력의 바탕 위에서 특기 · 경력 · 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 전형 시행 초기에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이제는 개별 대학들도 특기자 전형에 기초 학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관계자들은 학교장 추천제나 농어촌 특별 전형 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는 학력에 의해 정시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 전형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실증적인 조사를 해 볼 계획이다.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해당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이나 학사 관리에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특기나 소질 계발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 전형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탐색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많은 영역에서의 특기를 신장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초·중·고교의 진로 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특기 적성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하여 특기 교육을 위한 시행 착오와 탐색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의 소질을 계발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수능 점수 몇 점을 더 올리려는 소모적인 과외에 비해서는 생산적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비용도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내에서의 특기 적성 교육을 다양화하며,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교내 특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 특기 과외 수요를 교내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 전형의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시 대회 수상 경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도 특기 신장 과외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나 학생의 과도한 욕심으로 많은 영역에서의 수상을 위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학생이 목표로 하는 특별 전형이 있다면 적합한 부분에 경시 대회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경시 대회 난립 문제에 있어서는 각 대학에서 개최하는 개별적인 경시 대회를 대학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과 등급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 교과적·탈 교과서적으

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종전의 학력고사와는 달리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강조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9등급제의 도입으로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능 시험의 변별력은 수능 시험이 상위권 학생 위주의 시험이 아닌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임을 고려해야 하며, 수능 시험 한 가지에 변별력을 의존하기보다는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 학문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생의 특기나 소질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 요소를 개발,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수능의 변별력 문제는 다양하고 단계화 된 전형 방법을 통해 상당 부분이 해결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기초 학력을 충실히 갖춘 학생이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3.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문제

고교에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최근의 이른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이다. '99년 4월 교육부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587호)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교육부 예규 제247호)상의 평정환산표(과목별 전 학년생의 평균 성적이 변화함에 따라 성취도 결정의 하한선이 조절되는 일종의 성적 조건표)를 폐지하여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상대 평가 방식인 계열별 석차률 평어(수, 우, 미, 양, 가)와 함께 병기하도록 함으로

써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을 절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 하면서 일부 학교의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학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과 학생들의 학습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고교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실정에 따라 공동 출제 · 난이도의 조정 등을 교과 협의회 또는 교내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과목별 · 단위별 목표, 평가의 내용 · 수준 · 방법 등을 사전 예고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교차 채점 · 채점 기준 공개 등 성적 처리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며, 학생의 이의 신청 기회 부여 등을 통한 채점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앞으로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 연수 및 장학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철저히하며, 대학들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학별 전형 방법 개발과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는 그 폐해와 과목별로 계열별 석차가 제시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을수록 불리하게 된다는 것도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4. 대학별 2002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세부 사항 조기 발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대학별로 2002학년도에 세부적인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진학 지도가 어려워지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99년 3월에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 서

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0년 5월부터 좀더 발전된 2002학년도 전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모집 단위별로 요구하는 수능 영역이라든지 내신 교과목 등이 결여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어 고교 현장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의 발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부터 너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 고교에서는 그 방향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2학년도 입학 전형은 수시 모집이 2001년 3월부터 가능함을 감안할 때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구체적인 학생들의 진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공표한 전형 계획은 수험생들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교육 주체별 역할과 과제

2002학년도 새 대학 입학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시행 과정에 있어 많은 전형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 나타날 혼란, 특히 주관적 판단 결과를 전형 요소로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새로운 대학 입학 전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이 모두 혼연 일체가 되어 새로운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대학

대학은 자율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격자를 선발하되 선발에 따르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양한 전형 자료의 평가에 따르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전형 방법 연찬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일반적으로 적격자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을 수 있다.

(1)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이나 점수보다는 대학 진학 후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교 환경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집중적인 과외 지도를 통해 얻은 몇 점의 성적이나 점수치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습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단순한 성적 우수자보다는 전공 계열이나 학과의 교육 목표에 적합한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수한 영역이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성적 일변도의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진학의 기회가 막히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3) 가능하다면 당해 대학의 교육 여건 속에서 최대한 능력과 성장이 가능한 학생을 찾아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대학 교육 풍토에서는 대학마다의 교육 목표나 특수성이 별로 강조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학 교육은 대학 나름대로의 교육 목표나 특성을 스스로 정립하고 차별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적격자 선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의 입학 전형에 관한 정책은 단순한 대학 수학 능력 적격자 선발을 넘어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려는 교육의 평등성 원리에 바탕을 두고 국가 인재를 널리 발굴·육성한다는 관점에서 강조된다. 그 예를 들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 능력의 개발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낙후한 교육 환경이나 문화 수준으로 인하여 타고난 능력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하여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새 제도에 있어서 큰 위치를 가지게 된다. 2002학년도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과열 과의를 해소하며 지·덕·체가 조화된 교육이 이뤄지는데 기여하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는 교육 활동에서 입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고등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교육에 전념하여 종전의 단순 주입식·일방적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며, 단기적 대학 진학 지상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독창적으로 사고하고 필요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평생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도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전형 때에는 이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학부모

이제 학부모들은 맹목적인 자녀들의 소위 명문대 입학보다는 그들의 적성이 무엇이고 어떤 특기와 소질을 지니고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진로 지도를 하는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제도하에서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협조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자녀의 개성·흥미·취미·특기·인성 등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제평가(諸評價)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의 정도에 있어서 "치맛바람", "내 지식 잘 봐 주기"식의 청탁성 참여가 아닌 공정성과 전체의 교육을 위한 참여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부

정부는 각 대학에 대학 입학 전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자율권에 부합하는 책무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각 대학의 입학 전형 방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입 전형 관리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되, 수능 시험의 보완 발전, 다양한 전형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대학입학 전형의 사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 또한 정부의 몫이다.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부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새 입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생 및 교원은 물론 학부모, 일반인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VI. 맺음말

하버드대의 가드너(Gardner) 교수는 인간이 지닌 IQ만으로는 개인이 가진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며, IQ가 높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이를 계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통적으로 수리·언어 능력을 지능의 주요 능력으로 보던 것에서 전환하여 언어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 지능, 운동 지능, 인간 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자

연주의자적 지능 등 8개 부문의 지능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이른바 '다중 지능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의 우등생과 사회의 우등생은 다르다.'는 이야기처럼 종전과 같은 성적 평가가 학생의 모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학 입학을 위한 SAT, 경영대학원 입학 사정에 필수적인 GMAT 등 학력 판별 도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종래 우리 나라의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선발 기준이 주로 시험 성적·학력 중심 일변도인 교육 풍토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학년도 대입 제도는 종전과 같이 학력 위주, 시험 성적 위주의 '한 줄 세우기'에 의한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이 지닌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여 '여러 줄 세우기'에 의한 학생 선발로 크게 전환될 것이다. 이는 일부 제한적인 지적 능력 이외에 대학별로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과 배경에 대한 고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흐름은 21세기 지식 기반에 대응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별 학생 구성원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지금껏 학생의 입학 성적으로 고착화되었던 대학의 서열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대학간 균형 발전과 우리 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최수태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제 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교육부 교육 정책담당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학사제도와 과정으로 재직중이다.